

AUTHOR 오현기

TITLE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 및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중심으로 본 현실참여 연구

IN 대학과 복음

vol.9 (May, 2004):159-184

Key Word: eschatologischen, Thema, Evangelium, Weltanschauung, Voraussetzung, wurde Wechselwirkung, Reich-Gottes-Gedankens.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 및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중심으로 본 현실참여 연구

Studie über das Teilnahmeprinzip an der  
Wirklichkeit mit der besonderen Berücksichtigung  
der Zwei-Reiche-Lehre bzw. der  
Zwei-Regimente-Lehre Calvins

오현기

Oh, Hyun Ki

(Kandidat f. Dr. theol.,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I. 서론

II. 본론

가. 하나님 나라와 이중적 시간개념

나. Calvin의 “ 두 왕국론 ” 또는 “ 두 통치론 ”

1) 시민통치(das bürgerliche Regiment)

2) 영적 통치(das geistliche Regiment)

III. 결론

## Abstract

Die hier vorgelegte Studie wurde zunächst abhängig vom eschatologischen Thema Calvins durchgeführt. Dabei verfolgte ich Teilnahmeprinzipien im Rahmen der Zwei-Reich-Lehre bzw. der Zwei-Regiment-Lehre Calvins. Selbstverständlich sind das Evangelium und die biblischen Maßstäbe bei Calvin die Fundgrube und die Quelle für die Erneuerung der Welt und für alle christliche Weltanschauung. Darüber hinaus besteht es kein Zweifel daran, dass für Johannes Calvin das eschatologische Bewusstsein die Basis für seinen theologischen Gedanken legte. Mit dieser Voraussetzung wurde der Terminus 'Reich Gottes und der temporale Doppelsinn Calvins analysiert. Dadurch kam ein Ergebnis: Der Reich-Gottes-Gedanke Calvins als eine positive Wechselwirkung und ein Ineinander von Zukunft und Gegenwart bzw. Transzendenz und Immanenz herausgefunden werden kann, weil das Reich Gottes nicht im Jenseits geblieben, sondern schon ins Diesseits gekommen ist. Dieser Reich-Gottes-Gedanke Calvins mit der immanenten Transzendenz kann das eschatologische Leben in der Gegenwart harmonisch präsentierten. Durch solche Anschauung sind das geistliche Regiment und das bürgerliche Regiment auch unter souveräner Fügung Gottes bei Johannes Calvin einheitlich. Die beiden Regimenter stehen bei ihm eigentlich in keiner Hinsicht zueinander im Widerspruch, sondern vielmehr

spielen sie eine positive Ergänzungsrolle in der Wirklichkeit. Diese Vision kann man für ihn als 'das ideale Bild der christlichen Stadt durch die 'Theokratie betrachten. Anders gesagt, die Qualitäten des Reich Gottes sind auch schon in der Welt da. Man kann deshalb sagen, dass das Leben in der Welt auch als das Reich Gottes erfahren wird. Freilich ist auch zu sagen, dass die Kirche und die Christen in der Welt eine große Rolle für die innere bzw. geistliche Erneuerung und die weltliche Erneuerung spielen sollen. Eine inspirierende und mobilisierende Kraft des Reich-Gottes-Gedankens ist gerade eine innovatorische Kraft für die Welterneuerung.

## I. 서론

###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신정통치(Theokratie)<sup>1)</sup>

Johannes Calvin(1509-1564)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특히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하나

1) 개혁주의 신학에서 선교의 의미는 당연히 성경적 원리와 별개일 수 없다. 실제적으로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고, 그 선포를 통해 예수님은 최종적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M. Hengel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을 위해서는 가족도 거할 곳도 두지 않고 순회교사로 백성들을 위한 설교가로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위한 사역을 위해 헌신 할 것을 주문하셨다는 것이다(Martin Hengel, *Die Ursprünge der christlichen Mission, New Testament Studies(NTS; 18)*, 1971/72, p.35). 이 근본적 선교의 과제인 파송(Sendung)과 복음의 선포(Verkündigung des Evangeliums)는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개념들은 서로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회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근본적 선교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의 전형(요 8, 42; 비교 요 5, 30 히 3, 1)이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교과제를 넘겨 계속 수행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파송과 복음의 선포는 소위 예수님의 선교 명령(마 28, 18 ff.)에서 만날 수 있다. Otto Michel 는 이 선교명령이 다니엘서 7, 13 f.과 연관 선상에 있다고 본다.(Otto Michel, *Menschensohn und Völkerwelt, Evangelische Missionszeitschrift(EMZ)*, 2. Jg., Heft 9, 1941, p.261-264.) 그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해 인자의 왕의 즉위(Inthronisation des Menschensohnes)(위의 책, p.261.)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예수님의 왕적 통치(Königherrschaft)의 선포를 승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스도의 및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파송과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 안에 이처럼 또한 암시되어 있다.

님의 나라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쓴 종교개혁자로, 또 설교가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다.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이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교회의 거룩한 본질이 세속 국가에 투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교회 안의 성직자에게도 시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2)</sup> Calvin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세속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나라의 이상은 Calvin에게 신정통치를 통한 이상적 기독교 국가상과 동일시 될 수 있다.<sup>3)</sup> Calvin은 이 신정통치의 유형을 무엇보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았고, 이를 중요한 자신의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sup>4)</sup>

신정통치의 선례는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개혁자, Huldrych Zwingli(1484-1531)에게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잠시 Zwingli를 살펴보면, 그의 사회 정치적 소명 또한 성경에 그 토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발굴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직간접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 사회적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신정통치를 현실에 시도하였다.<sup>5)</sup> 이를 위해 “신앙 안에 있는 정치

2) Bernd Moeller,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5. Aufl.(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p.258.  
3) Josef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Breslau: Marcus, 1937), p.68.  
4)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Cambridge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politics I, Calvin, Jean 2 Political science),(Cambridge u. a.: Univ. Press 1982), p.143.  
5) Robert C. Walton, *Zwinglis Theocracy*(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7, p.226.

또는 정치 안에 있는 신앙"을 실행하였다.<sup>6)</sup>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세계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이고도 실제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 윤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의 사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sup>7)</sup> 결과적으로 Zwingli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적, 세상적 통치가 놓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두 통치는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된다.<sup>8)</sup>

Calvin의 신학사상, 특히 종말론적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regnum dei)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9)</sup> John H.

6) Arthur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Zwingliana*, Bd. XIII, Heft 1, 1969, p.68.

7) 위의 책, p.88.

8) ZS II, p.347.

9) 신약성경안에 나타난 'h( basilei/a tou= qeou=와 'h( basilei/a tw=n ou)ranw=n 개념의 구약에 상응하는 표현은 'iyamf\$ tUk:lam 이다.(Gustaf Hermann Dalman, *Die Worte Jesu mit Berücksichtigung des nachkanonischen jüdischen Schrifttums und der aramäischen Sprache erörtert*, Bd. I., 2. Aufl., Leipzig: Hinrich, 1930), p.75.) Gustaf Hermann Dalmans의 구약성경 연구에서 구약성경이나 유대문헌이든지 하나님과 관련한 Malkûth는 항상 통치의 개념이지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위의 책, p.77). Joachim Jeremias도 같은 입장에서 구약성경 안의 "Malkûth"는 공간적 의미나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항상 정권적 통치, 권위, 왕의 권력 등을 뜻하며,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정적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Joachim Jeremias, *Neutestamentliche Theologie*, 2. Aufl.(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Mohn 1973), p.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초월적, 내세적 특성 그리고 공간적 하늘나라 개념에 대해 완전히 배타적 일 수는 없다.(Rudolf Otto, *Reich Gottes und Menschensohn*, 2. Aufl., München: Beck 1940), p. 22 f.) 신약성경의 경우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로서 'h( basilei/a tou= qeou=와 'h( basilei/a tw=n ou)ranw=n을 사용한다(Dalman, Gustaf Hermann, 위의 책, p. 76). Günther Bornkamm은 h( basilei/a 라는 개념은 통치와 왕국이라는 양자를 다 사용 할 수 있지만 통치라는 말이 더 객관적인 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공간적 의

Leith의 분석처럼 종말론적인 의식(eschatologisches Bewusstsein)은 Calvin의 전체 신학체계를 지배하는 대 전제이다. Calvin의 신학체계를 규정하는 종말론에는 죄와 마귀가 정복되고 인류구원의 완성에 대한 희망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다.<sup>10)</sup> 여기에서 한 세대 앞선 종교 개혁자 Martin Luther(1483-1547)의 종말론과의 강조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Calvin의 종말론은 Luther보다 더 종말론적 희망의 특성을 지녔다. 이점을 관찰한 Th. F. Torrance의 분석에 의하면, 루터의 종말론에는 "인자의 최종적 승리의 실제적 선취(eine wirkliche Antizipation des endgültigen Sieges des Menschensohnes)"보다는 종말에 발생할 "하나님 나라의 묵시록적 전쟁(apokalyptischer Kampf des Reich Gottes)"에서 당할 시련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는다. 그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는 마지막 때의 "시련 속에서의 위로"(eine Tröstung in Anfechtung)가 중요한 종말론적 주제로 자리한

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Günther Bornkamm, *Jesus von Nazareth*, 9. Aufl.(Stuttgart u. a.: Kohlhammer, 1971), p.182 f. 실제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 성만찬이 실행되는 장소 즉, 공간적 의미로 묘사되어 있어, 머물거나(마 8, 11 f.; 막 14, 25) 또는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다.(마 21, 31; 막 9, 47; 10, 15; 10, 25; 행 14, 22).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유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시간적 차이를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위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h( basilei/a tou= qeou=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게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p.161.

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Luther의 종교개혁적 종말론의 한 측면일 뿐이지, 종교개혁적 종말론 전체를 대변하지 못 함은 물론이다.<sup>12)</sup>

## II. 본론

### 가. 하나님 나라와 이중적 시간개념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상응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sup>13)</sup> 그리고 이 나라는 마귀의 왕국(Reich des Teufels)<sup>14)</sup>, 사단의 왕국(Reich des Satans)<sup>15)</sup>, 그리고 죄의 왕국(Reich der Sünde)<sup>16)</sup>과 대비를 이룬다. Calvin은

11) Thomas Forsyth Torrance, *Die Eschatologie der Reformation*, EvTh, 14, 1954, p.349.

12) 위의 책, p.349.

13)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p.333; Karlfried Fröhlich, *Gottesreich, Welt und Kirche bei Calvin*, (München: Reinhardt, 1930), p.94. Fröhlich의 책에서는 regnum Dei und regnum Christi의 비교를 위한 일목요연한 도표를 재공함으로 두 나라가 서로 상응함을 설명한다.

14) Calvin, Johannes: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Akz. Inst.); nach der letzten Ausgabe übersetzt und bearbeitet v. Otto Weber- die einbändige Ausgabe, (Neukirchen: Verl. der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 1955) I, 14, 14, p.87.

15) Inst. III, 20, 42, p.603.

16) Inst. III 15, 8, p.524.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영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Calvin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영적으로 될 것, 동시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sup>17)</sup> Calvin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이미 거하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받을 것인가를 설명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한다. 여기서 Calvin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즉, 이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그의 통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고 말한다.<sup>19)</sup> Calvin은 또 세례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주석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사죄와 생의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의 전체” 라고 설명한다.<sup>20)</sup> 이러한 맥락에서 Calvin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구원의 선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라로(ein spirituelles Reich)로 간주 될 수 있다. 이 나라는 그에게 칭의(Rechtfertigung)가 일어나는 영적인 처소이기 때문이다.<sup>21)</sup> A. Fischer가 관찰한 것처럼, Calvin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 이해는 정적인 개념(statischer Begriff) 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17) Inst. II, 15, 3, p.309.

18) Inst. II, 15, 4, S. 310.

19) Inst. II, 15, 4, p.310.

20) Inst. III, 3, 19, p.391.

21) Luther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 간주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외부적으로 관찰 할 수 없다고 한다. (“Quid autem sit regnum dei [Luk. 17, 22] sive coelorum, notum est, nempe in spiritu invisibile, intra nos, non in externa [2] observatione(...).”). 이점에서 Luther에게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고백되어야 할 성질이다. 아울러 Calvin 처럼 Luther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칭의의 사건의 영적 장소로 이해된다(WA 31/I, 505, 36 - 506, 2).

의 권능이 역동적으로 작용 것(ein dynamisches Gottes Wirken in Macht)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sup>22)</sup> 그러므로 Calvin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위한 역동적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Calvin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는 이중적 시간개념이 존재한다. Calvin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가 임박한 미래의 왕국이자 동시에 현재에 임한 사건이기도 하다.<sup>23)</sup> Calvin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통해 현재에 나타나며, 이것은 최후심판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K. Fröhlich에 의하면, Calvin은 최후심판은 종말의 사건일 뿐 아니라, 소급해서 현재에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Calvin은 최후심판이라는 개념의 착안 아래서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판단한다. Calvin은 하나님의 최후심판을 또한 시간적 현재 안에서 역사의 에토스(Ethos)로 받아들여다.<sup>24)</sup> 다시 말해, Calvin은 하나님나라는 원래 종말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현재 세상에서 체험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했다.<sup>25)</sup>

## 나. Calvin의 “두 왕국론” 또는 “두 통치론”

22) Fischer, Alfons: *Calvins Eschatologie in der Erstaufgabe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36"*, Dissert., Uni. Würzburg, 1991, p.251.

23) Inst. III, 9, 6, p.466.

24) Fröhlich, Karlfried, 앞의 책, p.7.

25) David E. Holwerda: *Eschatology and History: A look at Calvin's Eschatological Vision*, in: ders.(Hrsg.): A(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p.110-139.

Calvin의 소위 “두 왕국론” 또는 “두 통치론”은 Luther의 경우처럼 그의 종말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Calvin의 이 이론에는 그가 Luther의 ‘두 왕국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Luther는 그의 글 "Von weltlicher Oberkeytt, wie weyt man yhr gehorsam schuldig sey"(1523)에서 이미 두 종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소개했다.<sup>26)</sup>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로써, 그 나라의 본질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 규정되어진다. Luther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신앙인들 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상응한다.<sup>27)</sup>

Calvin도 Luther처럼 왕국을 통치형태와 목적을 통해 영적 나라와 시민적 나라로 구분한다. Calvin에게 있어서 영적 통치의 목적은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적 통치의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시민적 삶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sup>28)</sup>

26) "Hie müssen wyr Adams kinder und alle menschen teylen ynn zwey teyll: die ersten zum reich gottis die anderen zum reych der welt." (WA 11, 249, 24 f.).

27) "Die zum reych Gottis gehoeren, das sind alle recht glewbigen ynn Christo unnd unter Christo. Denn Christus ist der koenig unnd herr ym reych Gottis(...) Und er auch darumb komen ist, das er das reych Gottis anfienge und ynn der welt auffrichtet. Darumb [Joh. 18, 36. 37] spricht er auch fur Pilato: meyn reych ist nit von der welt, sondern wer auß der warheytt ist, der hoeret meyne stym, und ymer ym Euangelio das reych [Matth. 3, 2] Gottis antzeucht und spricht: 'Bessert euch, das reych Gottis ist erbey komen. [Matth. 6, 33] Item: sucht am ersten das reych Gottis und desselben gerechtickeit. Und [Marc. 1, 14] nennet auch das Euangelion eyn Euangelion des reych Gottis, darumb das es das reych Gottis leret, regirt und enthellt." (WA 11, 249, 26-35).

Calvin은 이 두 통치는 본질상 현실세계에서 서로 충돌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긍정적 보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sup>29)</sup>

### 1) 시민통치(das bürgerliche Regiment)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 영역과 시민적 영역을 포괄한다. 그 근거로 소위 Extra-Calvinisticum의 사상을 들 수 있다. Extra-Calvinisticum의 학설은 Inst. II, 13, 4의 마지막 Calvin의 진술부분을 토대로 한다.<sup>30)</sup> 원래 이 부분은 성만찬 논쟁에 있어서 개혁주의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로 쓰이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된 Inst. II, 13, 4에서 Calvin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 안에서 혹은 인성 때문에 제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의 밖에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역사 세계의 주인으로 세상에 출몰한다. Ch. Link 는 그의 논문에서 위

28) Inst. III, 19, 15, p.561.

29) Inst. IV, 20, 2, p.1034.

30) "Extra-Calvinisticum"의 근거가 되는 Calvin의 글은 다음과 같다.

„(...) denn das Wort ist zwar freilich in der Unermesslichkeit seines Wesens mit der Natur der Menschen zu einer Person zusammengewachsen, aber doch nicht darin eingeschlossen! Das ist ein großes Wunder: der Sohn Gottes ist vom Himmel herniedergestiegen - und hat ihn doch nicht verlassen; er ist aus der Jungfrau geboren worden, ist auf der Erde gewandelt, ja er hat mit seinem Willen am Kreuze gehangen - und doch hat er immerfort die ganze Welt erfüllt, wie im Anfange! (Inst. II, 13, 4, p.298).

의 논지로 Extra Calvinisticum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의 마음에만 연결된 상태에서 고갈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전 세계의 통치를 포괄하다.<sup>31)</sup>

앞서 살핀 대로, 두 통치형태가 본질상 현실세계에서 서로 충돌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긍정적 보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면, 시민 통치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공적 경외의 요구와 보호를 과제로 안고 있다. Calvin은 그 예로 경건적 교리와 교회의 안정된 위치를 보호하는 것, 공동체의 삶을(바르게)형성하는 것,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도덕을 확립하는 일, 서로 화해를 도모하는 일, 그리고 외적 평안처럼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등을 든다.<sup>32)</sup> 즉, 시민통치는 단지 외적-사회적 삶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종교적 삶의 보호도 그 통치의 대상인 것이다.

Calvin은 종교적 삶과 정치 사회적 평화의 확보와 유지는 시민 법규(bürgerliche Ordnung)에 의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sup>33)</sup>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up>34)</sup>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가능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민 통치가 그 과제를 합법적으로 실행해야만, 정부의 시민 통치와 통치권력은 올바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아래

31) Link, Christian: *Die Entscheidung der Christologie Calvins und ihre theologische Bedeutung. Das sog. Extra-Calvinisticum.* EvTh 47, 1987, p.99.

32) Inst. IV 20, 2, p.1034.

33) Inst. IV 20, 3, p.1035.

34) 비교 Inst. IV 20, 2, p.1034.



서는 시민 통치권을 가진 정부에게 순응하는 것은 정당하다.<sup>35)</sup> 비록, 예를 들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sup>36)</sup> 같은, 전제정치 아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Calvin에게 있어서 앞서 말한 시민통치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부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지의 구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Calvin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정부라도 신이 부여한 권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sup>37)</sup> 이 주장은 물론 구약성경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렘 27, 5 ff. und 단 5, 8 ff.). 그러나 무엇보다 Calvin의 근본적인 세속정권과 그의 통치에 대한 승인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글-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두고 있다(롬 13, 1 f.).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Calvin은 정부의 권력과 통치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환기시킨다. Calvin의 정부의 특별권한 -적법하게 집행된 왕의 전쟁 수행권<sup>38)</sup>과 조세 징수권<sup>39)</sup>-에 관한 언급에서, 정부는 그들의 주권적 권력의 행사 보다 오히려 그들의 책임감을 더 분명히 강조해야 할 것을 말한다.<sup>40)</sup>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Calvin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권력에든지 무조건 인정과 순종 할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창의적 사회참여와 사회에 대한 책

35) Inst. IV, 20, 4 f., p.1035 ff.

36) Inst. IV, 20, 27, p.1053 f.

37) Inst. IV, 20, 8, p.1038 f.

38) Inst. IV, 20, 11, p.1042 f.

39) Inst. IV, 20, 13, p.1044 f.

40) Gerta Scharffenorth, *Römer 13 in der Geschichte des politischen Denkens: ein Beitrag zur Klärung der politischen Traditionen in Deutschland seit dem 15. Jahrhundert*, Dissert. Uni. Heidelberg 1964, p.195.

임성에 대한 관심을 저해 할 것이다. 그러나 Calvin은 저항권에 관한 예외조항을 통하여 그러한 수동적 참여와 책임감 상실을 유발하는 논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 그 예외 조항이란, 만약 정부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명령을 내린다면, 한 치도 허락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도 말고,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sup>41)</sup> Calvin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부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가능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와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계속해서 Calvin은 말하길,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 군주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sup>42)</sup> 이 맥락에서 G. Scharffenorth는 Calvin의 저항권의 역사적 의미로 정치규범의 신 중세적-신정통치의 특성(*der neue mittelalterlich-theokratische Charakter der politischen Ordnung*)을 창조해 내었다고 평가했다.<sup>43)</sup>

41) Inst. IV, 20, 32, p.1056 f.; Zwingli는 세상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ZS II, p.352). 그에 의하면, 만약 정부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저버린다면, 그 정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에 복종 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Zwingli에게는 비기독교적 정부의 통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Joachim Rogge, *Zwingli und Luther in ihren sozialen Handlungsfeldern, in: Zwingliana*, Bd. XIII, Heft 10, 1973, p.640). Gerta Scharffenorth는 기독교적 도성은 Zwingli에게 있어 교회와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있는 그리고 훌륭한 시민과 다르지 않다. 시민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일치한다고 평가한다(Gerta Scharffenorth, 앞의 책, p.176).

42) Johannes Calvin, *Johannes Calvins Auslegung des Propheten Daniel*, übers. und bearb. von Ernst Kochs; *Johannes Calvins Auslegung der Heiligen Schrift*, Bd. 9(Neukirchen: Buchh. des Erziehungsvereins, 1938), p.468.

43) Gerta Scharffenorth, 앞의 책, p.200.

이 단원을 정리해 본다면, Calvin은 제네바 현실정치의 도전에 맞서 능동적으로 논쟁하였다. Calvin 스스로가 사회 개혁에 관한 사회-종교적 문제를 제기 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다. Calvin에게 있어서 개혁적 기독교는 현실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개혁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민 통치가 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권과 정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저항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권과 정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2) 영적 통치(das geistliche Regiment)

영적 통치와 시민통치의 비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환기시킨다면,(사실상) 시민통치의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Calvin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지상에서도 모종의 하늘나라의 여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sup>44)</sup> 즉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며, 자라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점점 확대 될수록 앞서 말한 시민통치의 최종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인정하고 수용 할수록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통치와 시민법규 등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가 성도의 공동체로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실에서도 구현 될 수도 있고 체험 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44) Inst. IV, 20, 2, p.1034.

영적 통치는 가건적 교회나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 (1) 교회

Calvin은 그리스도의 교회(die Kirche Christi)를 하나님 나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로 이해함으로 종말론적 의식의 현재화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에 관련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으로써 현실에서 점차적으로 확장된다.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의 주권 아래서 그의 의지를 따라 점진적으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확장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것이다.(고전 15, 28).<sup>45)</sup> Calvin의 이 진술은 교회확장(Kirchenausdehnung)의 구도 안에서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말하고 있다.

Calvin은 교회를 우선 불가건적 교회와 가건적 교회로 나눈다. 불가건적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자들(alle Auserwählten Gottes)을 뜻한다.<sup>46)</sup> 더 자세히 말하면, Calvin의 불가건적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성도를 포괄 할 뿐 아니라, 태초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포함한다.<sup>47)</sup> 이에 비하여 가건적 교회는 세상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Calvin은 가건적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참 교회상의 징표로 하나님 말씀의 확고한 선포와 바른 성례

45) Inst. III, 20, 42, p.603.

46) Inst. IV, 1, 2, p.684.

47) Inst. IV, 1, 7, p.690.

의 시행을 제시한다.<sup>48)</sup> W. Niesel은 이러한 Calvin의 교회관이 Augustin(354-430)의 교회 개념들에 닿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Calvin이 두 가지 교회론을 병행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건적 교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서 가건적 교회 개념을 사용한다고 분석한다.<sup>49)</sup> 왜냐하면 Calvin에게는 불가건적 교회보다 현실에 있는 가건적 교회가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Calvin은 불가건적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며, 사람과 관련된 가건적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와의 교통에 힘쓸 것을 주장한다.<sup>50)</sup>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Calvin의 강조는 Anglocalvinismus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Confession(1647), Chap. XXV, 2.)에 전수되었다.<sup>51)</sup>

Calvin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식 속에 안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현실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곧 현실 속에서 역사에 나타난 영적 전투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다.<sup>52)</sup>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Calvin의 이중적 조망을 함께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탄과 유기된 자들에게조차도 그의 보편적 통치를 행사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끄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특별한 통치로 교회도 이끄심을 알 수 있다.<sup>53)</sup> 지상 위의 교회가 하나님

48) Inst. IV, 1, 7, p.690.

4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Kaiser, 1938), p.183.

50) Inst. IV, 1, 7, p.690.

51) Ernst Friedrich Karl Müller(Hrsg.):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Leipzig: Deichert, 1903), p.599.

52) Inst. I, 14, 15, S. 87; Inst. III, 20, 42, S. 603.

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존재하는 한, 그 교회는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 (2) 그리스도인

영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역사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믿는 자들을<sup>54)</sup> 자신의 말씀으로<sup>55)</sup> 그리고 성령으로 통치하신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Calvin은 인간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동시에 세상과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천상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그의 공의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행하신다고 말한다.<sup>57)</sup> 만약 그러한 Calvin의 논지를 따라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세계관으로 나아가간다면, 그것은 Calvin의 의중을 다 읽지 못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 Calvin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sup>58)</sup>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삶을 위한 위와는 다른 더 보충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는 지상의 삶을 경히 여기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생각이다. Calvin의 “meditatio futurae vitae”는 하나님 나라를 지

53) Werner Krusche, 앞의 책, p.332 f.

54) Luther는 그리스도인을 이중적 존재로 정의한다. 즉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지만 또한 땅에 속한다고 한다(peccator et non, est in celo et in terra).(WA. 15, 728, 19 f.) 즉,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이라는 것이다.

55) Inst. III, 20, 42, S. 603.

56) Inst. III, 20, 42, p.603.

57) Inst. III, 20, 42, p.602 f.

58) Inst. III 9, 1, p.462.

금 여기서 사고하고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meditatio futurae vitae”의 피상적인 단어자체의 의미를 통해 현재적 삶을 경히 여길 수도 있고 치우쳐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만을 열망하게 되는 위험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 Schulze에 의하면 Calvin의 “meditatio futurae vitae”는 충동적 감정으로 내세에 대해 한 번씩 사고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적으로 현재적 삶의 목적을 묵상하고 이와 아울러 내세적 삶의 목적에 대한 감정과 의지의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sup>59)</sup>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현재적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sup>60)</sup> 이러한 함으로 동시에 현재적 삶을 위한 어떤 긍정적 안목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meditatio vitae futurae”는 Calvin의 신학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지상사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다. Calvin의 언급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십자가를 인내로 짊어짐으로 확장하길 원하신다.<sup>61)</sup> 즉, 하나님나라를

59) Martin Schulze, *Meditatio futurae vitae, ihr Begriff und ihre herrschende Stellung im System Calvins: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dessen Institutio*(Studien zur Geschichte der Theologie und der Kirche, Bd. VI, Heft 4), (Aalen: Scientia-Verl., 1971), p.3.

60) Inst. III, 9, 3, p.464.

61) Inst. III, 20, 42, p.603.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자로서 인내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sup>62)</sup>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하여 확장된다면 지상적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긍정과 지상의 삶에 대한 관심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허무주의나 염세적 사고가 아니라 확장과 개척을 위한 긍정적인 사고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주어질 영생에 대한 확신을 동시에 현재에서도 향유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견지하는 것은 세상과 역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 삶에 반영되어진다. 이 실천은 Calvin에게 공로사상의 구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론적 실천의식을 통한 현실참여는 내세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 III. 결론

개혁주의적 한국교회의 사회와 역사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제,

62) 비교 Inst. III, 7장, 8장.

아니 이미 당위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면 통일문제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개혁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이 한국교회에게 더 이상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교회의 대답과 입장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 소고를 통해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한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참여문제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효시가 되는 Calvin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 및 통치에 관한 사상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은 현실참여 문제의 성경적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단지 기존의 개인 구원에 충실했던 복음적 선교목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차원에서도 세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참여를 호소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alvin의 이론은 우리에게 올바른 개혁주의적 토대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그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항상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그 나라의 초월성(Transzendenz)과 내재성(Immanenz)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하나로 엮고, 또 이 상반된 요소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현재에 벌써 임한 나라로 파악되어 조화 있게 제시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적 개혁이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사회에 개혁적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초월과 내재적 성격이 잘 조화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다시 한번 사회와 국가의 개혁의 열망을 담아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사회 국가적 과제를 하나님의 통치

라는 주제와 관련시켜서 사고하며, 종말론적 차원에서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개혁주의적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그 이론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잠재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아래 세상과 영적 통치가 하나가 되고 참다운 신정 통치의 이상이 이 세상에서도 실현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Bohatec, Josef.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 Breslau: Marcus, 1937.
- Bornkamm, Günther. *Jesus von Nazareth*, 9. Aufl.. Stuttgart u. a.: Kohlhammer, 1971.
- Calvin, Johannes. *Johannes Calvins Auslegung des Propheten Daniel*, übers. und bearb. von Ernst Kochs: *Johannes Calvins Auslegung der Heiligen Schrift*, Bd. 9. Neukirchen: Buchh. des Erziehungsvereins, 1938.
- Calvin, Johannes.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Akz. Inst.); nach der letzten Ausgabe übersetzt und bearbeitet v. Otto Weber- die einbändige Ausgabe. Neukirchen: Verl. der Buchh. des Erziehungsverein, 1955.
- Dalman, Gustaf Hermann. *Die Worte Jesu mit Berücksichtigung des nachkanonischen jüdischen Schrifttums und der aramäischen Sprache erörtert.* Bd. I., 2. Aufl., Leipzig: Hinrich, 1930.
- David E. Holwerda. *Eschatology and History: A look at Calvins Escatological Vision*, ders.(Hrsg.):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Fischer, Alfons. *Calvins Eschatologie in der Erstaufgabe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36"*. Dissert., Uni. Würzburg, 1991.
- Fröhlich, Karlfried. *Gottesreich, Welt und Kirche bei Calvin.* München: Reinhardt, 1930.

- Hengel, Martin. *Die Ursprünge der christlichen Mission, New Testament Studies(NTS; 18).* 1971/72.
- Höpfl, Harro.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Cambridge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politics I, Calvin, Jean 2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 a.: Univ. Press, 1982.
- Joachim Jeremias. *Neutestamentliche Theologie*, 2. Aufl. Güntersloh: Güntersloher Verl.-Haus Mohn, 1973.
-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 Link, Christian. *Die Entscheidung der Christologie Calvins und ihre theologische Bedeutung. Das sog. xtra-Calvinisticum. Evangelische Theologie(Abk. EvTh)*, 47. 1987.
- Luther, Martin.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Abk. WA, 1883 ff.
- Moeller, Bernd.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5.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Müller, Ernst Friedrich Karl(Hrsg.).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Leipzig: Deichert, Michel, Otto, Menschenohn und Völkerwelt, Evangelische Missionszeitschrift(EMZ). 2. Jg., Heft 9, 1941.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Kaiser, 1938.
- Otto, Rudolf. *Reich Gottes und Menschenohn*, 2. Aufl.. München: Beck, 1940.
- Rich, Arthur.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Zwingliana*, Bd. XIII, Heft 1. 1969.

Rogge, Joachim. *Zwingli und Luther in ihren sozialen Handlungsfeldern*, in: *Zwingliana*. Bd. XIII, Heft 10, 1973.

Scharffenorth, Gerta. *Römer 13 in der Geschichte des politischen Denkens: ein Beitrag zur Klärung der politischen Traditionen in Deutschland seit dem 15. Jahrhundert*. Dissert. Uni. Heidelberg, 1964.

Schulze, Martin. *Meditatio futurae vitae, ihr Begriff und ihre herrschende Stellung im System Calvins: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dessen Institutio*. Studien zur Geschichte der Theologie und der Kirche, Bd. VI, Heft 4, Aalen: Scientia-Verl, 1971.

Torrance, Thomas Forsyth. *Die Eschatologie der Reformation*, *EvTh*, 14. 1954.

Walton, Robert C.. *Zwinglis Theocrac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7.

Zwingli, Huldrych. *Huldrych Zwingli Schriften(ZS.)*, Brunnschweiler, Thomas u. a.(Hrs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95.

Key Word: identity, Christian college, missionary activity care, College ministry, Christian spirits, Christian education.

##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창신대학의 선교전략

정명운(창신대학 교목)

Prof. Jung, Myung Woon(Changshin College)

배제현(창신대학 교수)

Prof. Bae, Jae Hyun(Changshin College)

### Missionary Strategies of Changshin College for a firm Identity as a Christian College

- I. 연구목적 및 의의
- II. 선교활동의 현황 및 진단
- III.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창신대학의 선교전략
- IV. 요약 및 결론